

현실 너머를 꿈꾸는 우리 삶의 몸짓

심호택·이상희·최하림·김영무·노향림의 시집을 읽고

이희중

시인·문학평론가

지난 몇 해에 비해 이 무렵 발간된 시집의 숫자는 눈에 띄게 줄었다. 걱정하던 일이 이만큼 현실로 다가왔다. 몇달 전 글과 책에 얽힌 일을 하고 사는 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집의 경우, 이제 다시 자비 출판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지나가는 화제에 지나지 않았으나 나는 그 걱정스런 예측의 뜻을 오래 되씹었다. 시집 출간을 둘러싼 수많은 풍설들. 이른바 권위 있는 출판사에서 1백권을 훨씬 넘는 시집 시리즈를 펴내는 관행은 순전히 한국적인 기현상인가? 우리는 그동안 분에 넘치는 시집을 읽고 살았던가? 그래서 이제라도 돈 세상의 순리대로 되어 가는가?

이른바 '본격 시집'의 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인기 시집'은 여전히 서점의 한 가운데에 터를 넓혀 잡고 예쁘디예쁜 표지를 자랑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더니, 이 가난한 시절에도 방긋방긋 웃는 시들은 잘 먹고 사는 모양이다. 나는 부유한 집안의 행복한 아이들을 밀치고, 가난한 집안에서 어렵게 태어난 아이 가운데 다섯을 고티다.

풍요롭게 갈무리된 풍광들

심호택, 《미주리의 봄》(문학동네). 시인이 미국에 머물며 겪은 일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시집의 줄거리를 이룬다. 그는 일상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그 잔영을 담는 데 기억할 만한 강점을 가졌다. 이 시집을 순서대로 읽으며, 나는 간결하게 말을 가려하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듯 편안했다. 그가 구경한 풍광들은 그의 눈길과 손길을 거치면서 풍요롭게 갈무리돼, 읽는이는 실상과 이에 대한 시인의 해석을 아울러 즐길 수 있다. 이런저런 사태 앞에서 시인이 드러내는 반응을 살피는 일도 재미있다. 이를테면 나들이에서 돌아오는 차안에서 아이들이 다투자, 차를 세우고 '차량한 목소리'로 '이렇게 한 차를 타고 즐거운 나들이 다닐 수 있는 날이 일생에 몇 번이나 있겠느냐'(<흰구름의 기억>)고 꾸짖는 장면이 그렇다. 이 흥미롭고 유익한 기행시편을 덮으면서, <구호물자>, <미주리 나무>, <김교수택에서>, <결별> 등의 시를 나는 따로 기억하고자 한다.

이상희, 《벼락무늬》(민음사). '눈을 뜨면



들이닥치는/前景과 後景 사이/읽고 싶은 책과 읽어야 할 책 사이/ 버릴 것과 구할 것 사이/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붙잡을 것과 놓칠 것 사이/식욕과 구토 사이//시시각각 좁혀오는 틈새와 난간 사이'(<초현실주의>). 이 많은 사이가 무엇인가?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나는 그 사이에 '현실'이 있거나, 그 사이가 바로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은 그 사이가 아니라 그 모두인가? 그러나 이 말이 내 말과 다르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시인은 제목을 <초현실주의>라고 붙였다. 뻘뻘한 현실의 틈 그 사이에 현실을 벗어나는 길이 있는가? 어쨌든 이 시는 시집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상징적 장면을 간직한다. 현실 속에 몸담고 살면서 정체를 모를 갈증으로 현실 너머를 꿈꾸는 몸짓.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문제는 화자가 마지막 연에서 드러낸 위기의식이다. 이는 이 시집에 세상을 잃는 이의 신음이 많은 이유를 설명한다. 나는 이 시집을 읽으며 '바다', 또는 넓게 말해 '물'의 변형에 밑줄을 긋는다. 신화적으로 해석할 의도는 없다. 부산 사람들은 바다를 그리워한다. 바다는 그들 삶의 바다에서 평생을 철썩거린다.

최하림, 《굴참나무 숲에서 아이들이 온다》(문학과학지성사). 그의 시는 아무 것도 가지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의 노래다. 원래 시인이야 가지지 않아서 더욱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일 터이지만. 그리고 그는 이미 '고요에 이르러'(<집으로 가는 길>), '고요히 세계를 보고 있다'(<저녁 무렵>). 이미 그는 어머니를 잃고 친구를 잃고, 건강을 잃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그의 마음에는 아주 깨끗하고 단단한 것들만 남아 있다. 계중에는 아내와 함께 시도 남아 있다.

미국에서의 일상을 세심히 관찰한 심호택, 현실의 틈새에서 그 너머를 꿈꾸는 이상희, 흑백의 고요함을 만나게 되는 최하림, 세상을 깊은 눈길로 바라보는 김영무, 강조된 풍경 속에 절제가 엿보이는 노향림. 이들의 시집에 축복을!

다들 붙잡아도 떠나는데, 시는 한사코 떠나려 하지 않는 모양이다. 시인은 때로 귀찮아서 '느티나무 아래 시들을 모아/불태우'(<시를 태우며>)기도 하고, '나는 아주 시쓰기를 멈추고 싶다'(<겨울 어느 날>)고 되뇌기도 한다. 이 시집에서 '새'가 맡은 배역은 매우 중요하다. 새는 나무와 더불어 충전연색으로 치솟아 오르고, 시인의 삶은 흑백으로 고요하다. 이들이 안내하는 굴곡을 쫓아가면 시집의 등성이 부근에서 아름다운 서정시를 만난다. <모자도 쓰지 않고>와 <아침 유대>가 내게는 그렇다.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깊은 눈길

김영무, 《산은 세소리마저 쌓아두지 않는구나》(창작과비평사). 이 시집에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려는 신앙심과, 깊은 눈길로 바라보려는 지성이 함께 있다. 시인은 문학연구자, 문학평론가, 시인의 면모를 함께 가지고 있다. 시집의 들머리에 무겁게 자리잡은 <조선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 연작에서 그가 성인의 입을 빌

려 전하고 싶은 말씀은, 한국 종교계의 폐쇄성과 속물성이다. 그는 아마도 모든 종교의 근원은 한가지이며, 근본주의적 지향만이 이즈음 한국 종교가 부딪힌 방벽을 돌파하는 방안이라고 믿는 듯하다. 그래서 그의 시에서 예수님은 더러 부처님의 사례를 원용하면서, 순수한 종교적 열망과 교리적 근원으로 복귀하기를 간곡히 타이른다. 그의 충정은 '아름다운 초록별 지구가 지금/십자가에 못박혀/신음하는 저 소리'라는 절박한 호소에까지 이른다. 이어지는 그의 시들은 이런 범종교적·범지구적·근본주의적 세계관이 빚어낸 서정이다.

노향림, 《후투티가 오지 않는 섬》(창작과비평사). 그의 시가 공들인 그림 속에서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가끔 보이는 익명의 사람들조차 풍경을 해치지 않도록 움직임 절제하고 있다. 그러나 속마음을 살피기도 쉽지 않다. 이런 방법은 풍경을 강조하기 위해 선택된 것처럼 보인다. 이는 극사실을 추구하는 풍경화가의 작품에서 사람이 흔히 삭제되는 것과 이유가 같다. 풍경은 유구한데 사람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풍경은 오직 자신을 선택한 사람하고만 내통한다. 이를테면 <석류>라는 고요한 시에서 '석류나무 한그루/불모의 시간을 사'는 까닭도, '시름이 파랗게 우러난/햇빛이 숨어들어 오'는 까닭도, 그리고 '손님 없는 텅 빈 열차가 하나 지나가는 중'인 까닭도 이 집의 주인이 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며 시의 화자가 그 분의 건강을 깊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임이 틀림없다.

지난날 활판의 시대에는 출판사마다 편집이 엇비슷했다. 컴퓨터 시대인 지금, 저마다 고유한 편집 감각을 발휘하여 서체와 여백의 개성을 자랑한다. 이번엔 보니 민음사의 글자는 조금 작은 듯이 아무지고, 창작과비평사는 특유의 허술하고 거친 편집에서 벗어났으나 여전히 제목 활자는 대문짝만하다. 문학동네는 자간을 줄여 조밀한 멋이 있다. 문학과학지성사는 한때 글자 엉덩이쯤에 붙는 구두점이 거슬렸는데 이는 나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지나치게 조밀하다. 최소의 자간과 행간을 선택한 데다 글자까지 흘쭉하게 하여 읽기에 꽤 불편하다. 어쨌든 시와 시인에게, 그리고 시집 출판사에 축복을! ♦